

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가난을 마을이 책임지다,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10488/>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영국 역사 드라마를 보면 마을 교회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빵을 나눠 받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 빵은 누군가의 선의로만 마련된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법에 따라 낸 세금으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출발점이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입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란 1601년 영국 의회가 만든 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교회의 자선에만 맡기지 않고 각 교구가 세금을 걷어 책임지도록 정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본 자료에서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생겨난 배경과 핵심 내용,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돕던 방식, 그리고 이 법이 남긴 한계와 오늘날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난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정한 첫 법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생겨난 배경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100년 가까이 쌓인 사회 변화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1) 수도원이 사라진 빈자리중세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주로 수도원과 교회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1530년대 후반 헨리 8세(Henry VIII)가 수도원을 해산하면서, 굶주린 사람들이 기댈 곳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